

소주값 나홀로 동결...보해 '뚝심'

보해양조주가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의 소주 출고가 인상 이후 잇따른 소주회사들의 가격 인상에도 여전히 가격을 올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보해양조 등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5.52%를 올렸으며 이후 대전·충남 지역의 맥키스컴퍼니, 제주 한라산 소주, 부산·경남의 무학, 올해 1월에는 롯데 주류까지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격 인상 이슈가 주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소주 소매가는 대형마트 기준 병당 70원에서 100원 가량 올랐으며,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5000원대 소주도 등장했다.

하지만 보해양조주는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소주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 보해양조주는 소주가 서민의 술로 불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과의 정서를 적극 반영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가격 인상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해양조는 전남,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 전문기업으로서 물가 상승과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등, 소비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려는 배려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포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를 비롯한 원료비,

소주회사 잇따른 출고가 인상
병당 가격 70~100원 올라
식당 등 5천원 소주도 등장
보해 "소비자와 고통 분담"
3총사 출고가 960원대 유지



보해양조의 소주 3총사 왼쪽부터 인세주, 인세주 부라더, 아홉시 반. <보해양조 제공>

포장재료비, 물류비 등 원가 누적 인상 요인이 10% 이상에 달하지만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좋은 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받아왔던 사

랑을 돌려준다는 차원의 배려도 깔려 있다.

이 같은 보해양조주의 뚝심 있는 행보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최근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등 소비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현실에서, 지역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인쇄주만은 기존 가격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소주를 더욱 애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애환심 마케팅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 모씨(46·광산구 신가동)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 저 소비자들의 지갑이 꼭꼭 닫혀 있는데 서민들의 술인 소주값마저 올라 안타까웠다"며 "지역 기업인 보해가 소주값을 동결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작은 마음을 써주니 애환심에서라도 애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인세주 등 소주 가격 동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들과 지역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소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정 가격이 올라가는 등 별도의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기존 출고가 그대로 제품을 공급해 100년 기업을 지향하는 보해양조가 소비자들과의 신뢰와 사랑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양조주 소주 제품의 출고가는 인세주와 인세주 부라더, 아홉시 반 모두 %2.90원을 유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4.91 (+12.37)
- ↓ 금리 (국고채 3년) 1.45% (-0.03)
- ↑ 코스닥 686.50 (+9.99)
- ↓ 환율 (USD) 1163.80원 (-2.40)



삼성, 기어 S2 전용 앱 출시 29일 삼성전자 모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기어 S2'로 랩핑된 쏘카 차량과 함께 기어 S2 전용 앱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월 12일까지 기어S2로 랩핑된 쏘카 차량 이용 고객에게 대여비를 50% 할인해주고, 기어S2 쏘카 앱으로 로그인하는 고객에게 1시간 무료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기아차 평균 연봉 1억원 돌파

신입 4천만원 넘어...국내 대기업 최고수준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3년 연속 1억원을 넘었다. 신입사원 평균 연봉도 4000만원 중반대로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아차가 작성한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해 직원 급여 총 3조5957억원을 지출했으며 1인당 급여액은 1억63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1억190만원, 2014년 1억61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액수다. 급여액 산정에는 퇴직금이 포함됐다.

기아차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 근무 연수는 19년으로 전년의 18.2년보다 늘었다.

신입사원 연봉은 지난해 4590만원으로 전년의 4740만원보다 다소 줄었다. 이는 2013년부터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고졸 생산직 사원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3년 신입사원 연봉은 4850만원에 달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의 직원 및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국내 제조업체 중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매년 신입과 경력직 채용에 수만명이 몰리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은 6680만원 수준이다. 기아차는 직원 연봉뿐만 아니라 복리 후생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만 5710억원을 썼으며 1인당으로 환산하면 1680만원에 달한다. 임직원 교육비도 지난해 총 197억원이 투입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세 中企에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중기중앙회, 17개 시·도 13억원...길거리 가입 캠페인

광주에서 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H사는 2004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했다. 업의 특성상 상품판매 후 판매대금 회수가 대부분 어렵고 수표로 되다보니 결제대금을 현금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공제기금 상품은 신용등급에 따라 납입부금의 최대 7배까지 4~5%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 실제로 어음·가계수표 대출과 신용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금 대출 상품을 통해 33억원을 120회에 걸쳐 활용하면서 사업 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광주와 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을 13억여원으로 확정하고 영세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 가입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1982년 만들어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가입자 납입금으로 4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부도어음 대출과 어음·수표 할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업 중소기업은 신용도에 따라 미가입 기업보다 낮은 연 3~5%의 금리로 어음·수표 할인 대출과 단기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대상은 유통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2월 말까지 1만3000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납입 부금은 매월 10만~100만 원이고, 4회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졌을 때 부도위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0037)에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망 있으면 사업자금 빌려드립니다"

은행 관계형금융 전업종 확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 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정보통신기술업에서 모든 업종(부동산업 제외)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을 지난 28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은 성격을 고려해 관계형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계형 금융이란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

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 거래나 접촉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대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 방식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대출 심사자가 기업의 사업전망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은행권이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1조3863억원(3861건)의 자금공급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전남 버스조합이사장에 이덕연 금호고속 대표

이덕연(사진) 금호고속 대표이사사가 28일 열린 '전남버스조합 제62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추대됐다.

이번 정기총회는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배병호 전남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 22대 이사장에 추대된 이덕연

이사장은 소감을 통해 "교통안전과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조합원사와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고 조합원사

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물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신축 호텔

現)BLVD HOTEL
서울 영등포 로터리

매매

교환

15층 81실
임대완료(성업중)
보증금 10억, 월세 7500만원

- 시행사 직접매매
- 매매가 165억원(조정가)
- 교환가능(토지, 건물 등)
- 직영가능

담당자 : 조송정 상무 010-7624-8822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경인리츠